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121호_발행일 : 2005년 3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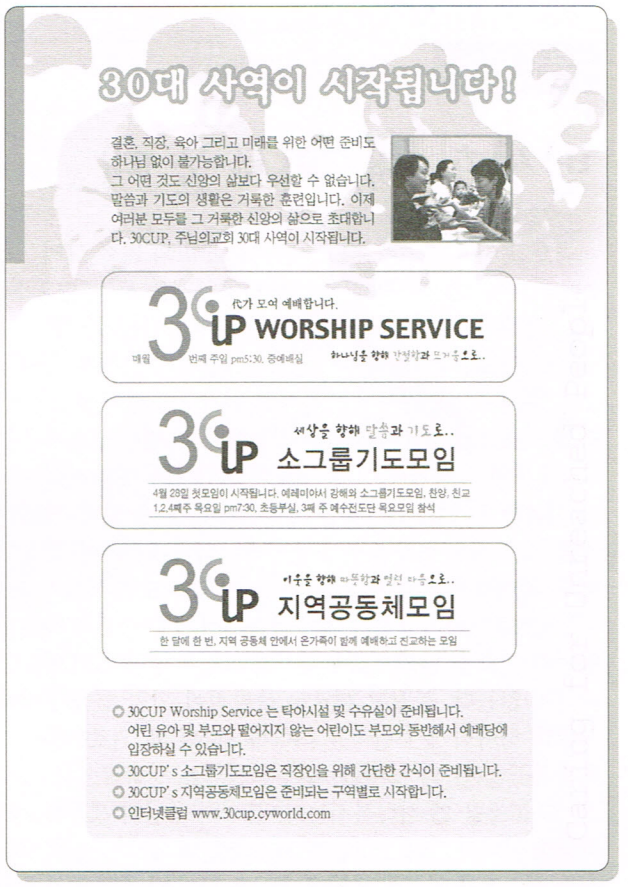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5년 교회표어 :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_02-416-5181_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시간 가져

25일 성금요일 칸타타 이후 성찬식 함께 나눠

오늘은 부활주일이다. 지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서 한주간동안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시간을 가졌다.
가상칠언을 하루씩 묵상해나가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4-500여명의 성도들이 매일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묵상하고 고난주간을 의미있게 보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에는 매일마다 교회 내외의 몇몇 사역팀들을 중심으로 특송하는 시간도 가졌다. 월요일, 시온 찬양대, 화요일, 정신학원 선교팀, 수요일, 샬롬 찬양대, 목요일, 앙코르 찬양팀, 금요일, 교회학교 교사 연합이 수고해 주었다.
또한 새벽 이른 시간에 누구보다 일찍 나와 주차안내를 도와준 차량 봉사팀과 예배안내를 도운 예배 및 안내부 성도들의 수고도 컸다. 새벽기도회 때 말씀 선포이후 조명을 끄고 묵상 찬양을 계속 틀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뜻있는 시간도 가졌다. 그리고 새벽기도회 이후 곧바로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해 빵과 음료도 제공되었다. 또한, 25일 성금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대강당에서 호산나 찬양대 주관으로 성금요일 칸타타가 있었으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성 금요일 칸타타 이후에는 성찬식을 집례하므로 예수님의 고난을 일년 어느 때 보다 성금요일에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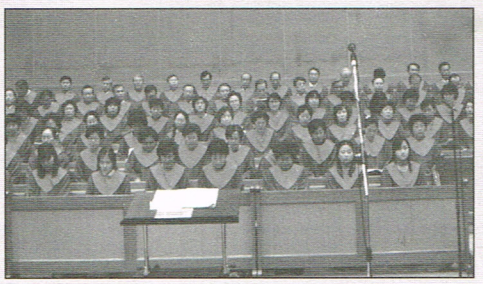


호산나 찬양대의

성금요일 음악예배 칸타타

호산나 찬양대 주관으로 25일 성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성금요일 칸타타 음악예배를 드렸다. 이번 성 금요일 음악예배 칸타타를 위해서 호산나 찬양대는 2월 둘째 주일부터 준비해왔다.

이번에 부른 찬양곡은 존 퓨리포어의 곡으로 전체 6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어둠을 이기고, 2. 이 떡과 이 잔, 3. 깊은 밤중에, 4.예수를 못박아라, 5. 웬말인가 날 위하여, 6. 어둠을 이기고[재현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날 특별히 음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창섭 장로가 곡중 낭독을 통해 호산나 찬양대의 칸타타와 함께 해 주었다.
호산나 찬양대는 연습용 악보뿐만 아니라 CD까지 미리 준비하여 전대원의 개인적 연습에도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 평일 연습은 전대원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목요일로 선정해서 저녁 7시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한 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지하 찬양연습실에서 했다. 2월 참석율은 60%수준이었으나 3월에는 80%로 높아졌다. 주일에는 전대원이 1부예배 후 평소보다 1~2시간 더 연장하여 연습했다. 곡과 가사 내용이 주님의 생애 중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고난과 부활을 표현하는 것인만큼 감정있게 표현(발성)해야하는 부분이 자주 나와서 악보에만 집중하면 지휘자의 주문을 놓치기 쉬운 어려운 곡이지만, 다른 곡에서 느끼지못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청소년 찬양 축제 열려

교육부를 담당하는 홍민기 목사가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사역 단체인 브리지 임팩트 주관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대예배실에서 청소년 찬양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주 토요일(19일)에는 그 첫 모임을 가졌다. 참석인원은 약 100여명이 모였는데, 첫 모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과 청소년 사역자들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첫 날이었지만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들과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은 모두 성령 안에서 뜨거웠고 홍민기 목사의 힘있는 설교가 있었다. 앞으로 이 집회에 우리 교회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교회 교회학교를 출석하지 않는 많은 청소년들도 참석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영어예배 오늘부터 시작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 예배

오늘 오후 1시 30분 1층 제3집회실에서 영어 예배(English Service)가 시작된다. 이 영어예배를 위해 교육부를 지도하고 있는 홍민기 목사와 영어 예배를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나현수 전도사가 3개월에 걸쳐 스텝들과 함께 준비했다.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영어예배가 처음으로 시작된다. 이 영어 예배를 통해 영어에 익숙한 한국인들과 외국인 그리고 1.5 세대와 같은 이들이 영어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길 원한다. 이 영어예배를 위해 많은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요청한다.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이 넘치는 영어예배를 기대한다.

새가족에게 편안함을 안겨주는 교회가 되어

지난주 토요일(19일) 오후 6시에는 지하 식당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다. 30대모임을 비롯한 7개 교구가 각각 자리를 따로 만들어 교구별로 새로 교회에 등록하여 5주간에 걸친 새가족 양육 과정을 수료한 새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사랑과 한가족됨을 느끼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신영숙 집사의 사회로 새가족환영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포근하고 따뜻한 안식을 누리는 자리가 되었다. 남성 중창 찬양도 있었고, 새신자 가운데 대금을 연주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고 유쾌한 간증을 하는 부부와 예비부부도 있었고, 가슴 뜨거운 간증을 하는 선교사 가정도 있었다. 이 날 교구별로 교구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들이 함께 동석하여 새가족들을 더욱더 뜨겁게 맞이해 주었으며 무엇보다 새가족팀들의 준비가 훌륭했다. 앞으로 새가족 환영회는 규모를 더 작게 하고 가족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가능하면 한 달에 한번씩 이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새가족팀은 더욱 더 잦아지는 행사에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지만, 그들의 수고를 통해 새가족이 느낄 따뜻함으로 인해 성령 안에서 새 힘이 충만히 공급되어질 것이다.

목요모임

번성할 때, 괴로울 때

목요일 저녁 중예배실은 주님의교회 밖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 함께 뜨거운 찬양예배를 드린다. 3월 24일은 예수전도단 선교본부장 김지태 간사가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장 1절에서 11절로 위로를 주시고 일으키셔서 세우시길 먼저 기도했다. 이스라엘은 초창기 애굽에서 심히 번성했다. 70명이 건너가 400년 동안 장정 60만이 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급성장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그 분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기에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시키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았는가?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은 땅에 그저 떨어지지 않는다. 붙잡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성을 허락하셨다면 왜 괴로움을 허락하셨을까? 왜 노예가 되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가? 그 고통을 왜 허락하시는가? 분명히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주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꿈을 꾸며 더 좋은 사람과 더 좋게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알고 계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 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고 싶으셨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괴롬을 당할 때 비로소 본향을 바라보게 된다. 그 본향에서 만나고 싶다는, 천국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 괴로움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허용, 허락하신 것이다. 더 좋은, 더 영원한 것으로 채우고 싶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다. 애굽에 있으면 가나안은 별로 갈 만한 곳이 못되어 보이는 땅이며, 변두리 같은 곳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가나안땅은 생명복음의 시작이요, 세계의 중심지로 사용할 곳이었다. 보내는 땅이 변두리 같더라도 가자 테레사수녀처럼 소망이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애굽을 떠나고 미련을 벗어나라 고역을 못 견디겠다 말하지 말고 절망, 방황, 포기하지 말라 약속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간다고 믿으라 목요모임은 30대 직장인들을 위한 모임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을 잘 섬기고자 몇주에 걸쳐 직장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줄 강사를 특별초청하게 된다.

당신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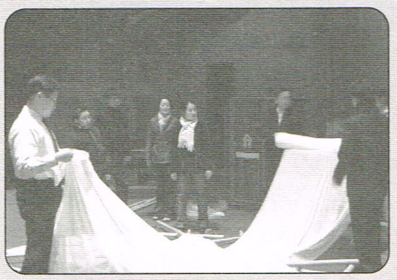
중보기도팀 월례회가 24일 목요일 10시 30분 유아부실에서 있었다. 29명이 모여 찬양을 부르고 주님의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로 시작했다. 이사야 53:4~12 말씀으로 정영환 목사는 사역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은 연결된다며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고, 그 분이 하신 것처럼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하며 우리도 그분의 사역을 본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발대식 후에 중보기도팀은 말의 책임을 져야하고 교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선서를 했던 것처럼 책임이 크기에 잘 이행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중보기도 카드에 녹아있는 슬픔과 고통의 짐이 크듯이 중보기도팀이 그 짐의 무게를 느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에 그 짐을 기꺼이 지도록 해야 한다.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성도들의 짐을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중보기도 카드를 낸 교우들은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기에, 가까운 가족, 구역식구나 중보기도사역자들 서로들에게도 아는 척하지 말고 입을 열지 말아야 한다. 1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이런 일로 실족치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입을 열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며 우리에게도 만족이 있게 된다고 전했다. 말씀 이후에 우리 입술의 자물쇠를 달아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였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나갈 수 있게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였다. 또 팀별로 모여 간절히 기도를 드린 뒤, 성령의 인도 따라 몇 사람이 기도를 올렸다. 다시 한 번 중보기도사역팀은 사명 감당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다짐한다.

명화사회복지관으로 무의탁 노인들께 반찬 만들기 봉사

4여선교회는 3월 23일 수요일 5층 찬양연습실에서 담당 교역자인 김현령 전도사의 인도로 3월 월례회를 가졌다. 김현령 전도사는 고린도후서 1:12-14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 속에서 특별히 설교자에 대한 화답으로써 '아멘'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했다. 실행이 따르지 않는 립써비스 성격의 '아멘'은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지만 너무 반응 없이 묵묵부답으로 말씀을 듣기만하고 표현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우리 주님의교회는 말씀 중 너무 회중의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배 후 회원들은 수서에 있는 명화사회복지관으로 무의탁 노인들께 드리는 반찬 만들기 봉사에 참여하였고 음식을 만드는 동안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약 80명의 음식이 완성 되었을 때 커다란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다. 또 어르신들께서 반찬을 받아 가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회원들 모두도 함께 즐거웠다. 4여선교회에서는 매달 둘째 수요일은 성로원 아기돌보기 봉사를 하며, 넷째 주 수요일은 아침에 월례회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반찬 만들기 봉사를 한다. 4여선교회는 우리교회 출석하는 여자 성도 중 1955년부터 1960년 사이의 태어난 여자 성도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연령층에 해당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청년부

건축가 김수근씨가 설계한 경동교회에서 부활절 준비



3월 18일 멀티미디어팀과 청년부 임원단이 함께 장충동 경동교회를 방문했다. 건축가 김수근씨의 독특한 구상으로 유명한 이 교회를 방문한 까닭은, 이곳의 부활절 예배 설치 미술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무대장치를 담당하시는 분의 친절한 인도로 청년부는 교회 건축의 배경에 관한 설명을 듣고, 예배당 위에 지어진 공연 무대에까지 올라가 볼 수 있었다. 교회의 어느 곳도 양 옆이 같지 않는 비대칭의 구조로 디자인 되어 있는 콘크리트가 노출된 기법의 교회는 퍽 인상적이었다.

더구나 모든 요소가 정육면체를 (예를 들면 바닥의 타일 무늬, 헌금함 등) 기본으로 한 이 교회에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계단이 돌고 돌았다. 민희 자매의 말처럼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며 마음을 정리하게 하는 기운이 느껴졌다. 교회 견학 후 자매들은 구상에 따라 구조물의 뼈대를 테잎으로 연결하고 그 위에 흰 천을 씌우는 작업을 했다. 반면 형제들은 사다리에 올라가 못을 박는 일을 도왔다. 돌돌 말려진 흰 천이 단상 앞에 쭉 펼쳐졌다. 짧은 시간 우리가 도운 일은 미미했지만 먼저 부활절을 맞이하는, 부활절을 기다리는 기쁜 마음은 가득 담을 수 있었다. 군데군데 칠판을 놓고 김수근씨가 직접 설계를 했다는 이 교회에서 구조물의 미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체험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청년부내 사진 촬영 진행중!

멀티미디어팀에서 알립니다.

청년부 수첩에 들어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단독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수첩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속하여공동체 행사 프로그램, 조모임에 안내 받고 섬기는 실제적인 청년부원이 되는 등록입니다.

■ **언제 ?**
예배전 : 1시~예배후 조모임가기 전까지 (3/27, 4/3)

■ **단, 개인사진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전체교인수첩에 등록된 사진은 파일 그대로 할 예정이니 수첩을 확인하시고 빠진 분들은 꼭 찍으세요

루디아의 집

이삿짐 나르고 함께 기도

청년부에서 매주 셋째 주는 봉사활동을 가는 주이다. 지난 주 3월 20일 청년예배 후 김장욱 국내선교팀장을 비롯하여 약 40여명의 청년들이 송파구에 있는 정신지체아들이 지내는 '무지개홈스쿨'과 시각장애인 할머님들이 계시는 '루디아의 집' 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루디아의 집' 이 이사가 있는 날이라 평소보다 두 배의 인원이 루디아의 집으로 향했다. 평소와 같이 두 명의 자매들과 시각장애가 있으신 할머님 한분이 짝을 이루어 성내천을 산책하며 말동무가 되어드렸다. 할머님들은 제법 따뜻해진 봄기운을 온몸과 귀로 느끼시며 즐거운 산책을 하셨다.

그 시간 형제들은 짐을 싸고 이사 갈 새 집으로 물건들을 옮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사 갈 곳은 기존에 있는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2층짜리 주택인데 거실에 딸린 창이 커서 할머님들이 따뜻한 햇살을 느끼시기에 충분했고, 여전히 성내천과도 가까워서 산책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아주 좋은 곳이었다. 7시가 다 되어서 이삿짐 운반이 마무리 되었다. 모두들 머금은 환한 미소가 봉사활동의 느낌을 말해주는 듯 하였다. 특별히 그곳 기도제목을 나누었는데, 먼저 가평 사회복지시설 건설이 늦어도 5월에는 착공을 해야 하는데 좋은 건설업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부탁을 하셨고, 그 날 함께 생활하시던 할머니 한 분이 운명하셔서 장례를 치러야하는데 순조롭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두 분의 할머님과?' 루디아의 집'에서 생활하고 계신 할머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이사 가는 곳에서의 적응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를 부탁하셨다. 함께 간 청년들이 이 기도제목을 놓고 잠시나마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주 작은 섬김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매월 셋째주에 있는 봉사활동은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배우고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다.

4부예배에 최춘선할아버지를 알린 김우현 감독 초청간증

지난 20일 4부예배에 인터넷에 최춘선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좇아 제작한 동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는 김우현 감독을 초청해 그의 간증을 들었다. 이 날은 최춘선할아버지 동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김우현 감독이 나와 그가 맨처음 고백한 것은 '할렐루야' . 그의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놀랍다.

"계속 만나고 싶고 만나면 너무 편했다. 마지막 장면에 손을 흔들며 떠나셨던 모습을 다시 보니 지금도 손을 흔들고 싶다." 최할아버지는 만나면 3천원, 5천원 '선교헌금' 이라며 용돈을 주셨다. 축복을 많이 해주셨다. 북한 가서 급식처 회장되라고, 선교회장되라고, 영생왕자 해같이 빛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또 골고다선교회장되라고도 하셨단다. 56억 인구가 십자가를 소유하시길 원하셨던 너무 큰 분, 그래서 너무나 편안했다. 너무 겸손했다. 2000년 설날 떡국 한 그릇 사드리고 싶어 몇시간씩 찾아다녔다. '주님, 할아버지 만나고 싶네요' 라는 기도끝에 한남동에 사신다던 말씀이 떠올라 주님 기뻐하시면 만나게 해달라고 무작정 한남동으로 향했다. 한남동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우연히 걸어오고 계셨다. 2000년 1월 뒷골목에서 동영상은 현재 스페인어로 영어로 번역되어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나의 작품이 아니다. 나는 도구, 기능이다. 이미 부흥은 시작되었다. 내가 만들었지만 이해가 안된다. 내 마음에 떡국 한 그릇 대접하고 싶었던 애정을 하나님께서 귀엽게 보신 것 같다."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 있었던 2001년 9월 8일, 그 날 몇시간 후에 수원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돌아가셨다. 가시면서 그렇게 손을 흔들며 웃고 계셔서 어디 멀리 가시나 했었는데. 최춘선할아버지는 죽기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하셨다. 거의 천재였던 그가 그런 방식으로 하늘이 시켜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한 것이다.

그의 유품에는 2001년 8월 15일부터 곧 주님앞에 간다는 메모와 전부 장례 찬송가가 적혀있었다고 김감독은 나이 30이 되도록 열매가 없어 절망했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야 믿는다. 알려지자 사실 자신을 숨기고 도망치고 싶었다는 그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춘선 할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응답과 증표를 보여달라는 것에 바로 응답하셔서 최춘선 할아버지를 알고 지내셨던 분들과의 연락이 닿으면서 그는 따르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은 캐스팅의 귀재이시다. 이 다큐멘타리 주인공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며 충성하는 발걸음에 뜨겁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진실과 충성을 잊지 않고 열매를 맺으시는 그 분이 주인공이다. 나는 허무, 패배주의를 다 씻었다. 나는 겨자씨 하나처럼 보잘것 없었는데 천국이 잉태되었던 것이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자기 안에 천국을 발화하고 키웠던 분이다. 그 발걸음을 축사하셔서 수백만배 이루어가시고 계신다. 오죽하면 그 발을 벗으라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표현하며 오죽하면 나같은 사람도 외칠까? 나도 외치겠다. 광야의 외치는 소리가 되겠다. 믿고 붙들고 천국을 키워주세요 기도할 때 벗게 된다.

우리 하나님은 주인공이시다. 맨발로 벗길 원하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했던 그가 간증을 해도 한 번도 외쳐본 적 없었다는데 주님의교회에서 처음 외친다는 그는 한마디 한마디가 놀라웠고 일깨우고 있었다.

예배자 학교 "스쿨 오브 워십" 11주간 토요일 오후 5시 진행

청년부 찬양사역팀인 '새벽이슬' 주체로 지난 3월 19일 토요일 오후에 예배 훈련 학교인 "스쿨 오브 워십"이 시작되었다. S.O.W(School Of Worship)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며, 처음 그 예배의 순수함을 회복하게 하고 우리가 당당하고 있는 예배 사역을 기름부음 있는 성막으로 인도하여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 11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5-7시 3층 초등부실에 진행된다. 지난 3월 19일 첫 시간에는 청년부 이강혁 전도사를 통해 '복음'에 관해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악 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예배의 원리', '예배 인도',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역할', '공동체 사역'등의 주제로 남은 10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말씀의 진리위에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예배, 살아서 생명력 넘치는 예배가 이뤄지기를 기도한다.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은 '이 만큼 하면 된다' 라는 안주(安住)의 유혹 이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 스스로를 낮추는 것, 어디서나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것,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 끝까지 신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사역의 목적을 매번 점검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등의 질문들 가운데 안주의 유혹을 경험 해 보았는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예배 인도자, 예배 및 공연기획자, 스텝양성과 말씀의 진리위에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예배, 살아서 생명력 넘치는 예배가 이뤄지기 위하여 참여하길 원하는 누구나 '스쿨오브워십'에 초대한다.

5기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 이틀간 집중 세미나로 열려

5기 중보기도사역세미나가 4월 14일 (목,오후 7시-10시)과 16일(토, 오전 9시-오후 6시)에 5층 찬양연습실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4기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 많은 중보기도사역자들이 배출되었고, 지금도 활발하게 중보기도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일 오전에 하던 강의를 목요일 저녁과 토요일 집중세미나로 전환함으로써, 관심은 있었지만 참여할 수 없었던 분들, 특히 남자 교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의내용은 중보기도사역,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 중보기도의 승리의 모본,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 등입니다. 이 세미나를 수료한 후에, 중보기도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1층 자원봉사데스크에서 받습니다. 중보기도에 관심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재한외국인선교팀

파키스탄에서 카펫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재한외국인선교팀에서 2001년 11월부터 돕던 안산소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소금밭교회에서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일환인 Sewing training center in Pakistan(Rahawali center)에서 말씀이 새겨진 작은 카펫과 편지를 보내왔다. 주님의교회를 대신해 해외선교지원팀 담당 윤은성목사에게 재한외국인선교팀 팀장 이진원 집사가 카펫을 증정했다. 파키스탄 소재 Rahawali center는 2000년 8월에 소금밭교회에서 보낸 미싱 10대로 설립되어 2003년 주님의교회가 보낸 10대를 추가하여 20대의 미싱으로 무상기술교육과 무슬렘에게 복음을 전하며 2004년까지 57명의 미싱기술자 크리스챤을 배출하였다. 2004년에는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와서 장애를 입은 솔로몬에게 주님의교회가 장학금을 지원하여 신학을 공부, 목사안수를 받고 파키스탄으로 귀국하여 장소를 도시로 옮기고(Mandialla 근교) 지속적인 복음전파에 노력하고 있다. 이 솔로몬 목사는 늘 겸손하고 열정이 넘치는 주님의교회가 파키스탄에 뿌린 작은 선교의 열매이다. 파키스탄의 복음전파를 위해 주님의교회 믿음의 형제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한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에 대해 생각해보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5)

지난 종려주일(3/20)에 초등부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 의학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리스도의 고난" 영상을 보았다. 영상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고민하셨을 때부터였음을 알려주면서 주님이 신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예수님의 당하신 태형(채찍질), 예수님이 지신 가로목 십자가의 무게 및 상태, 못의 길이, 십자가상에서의 고통 등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임을 의학적으로 설명하였다. 아이들은 실제로 영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은 고난들에 대해서 알게 되자 충격을 받은 듯, 한 동안은 말이 없었다.

영상을 보고 난 후 반별로 모여서 영상을 보고 난 후의 느낌에 대해서 말했는데, 모두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한지 몰랐다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의 피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감사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 묵상해보면서 기도하기로 하였다. 심각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슴 속 깊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들도 아이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보고, 다시금 삶의 목적을 되새겨보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남서울교회에서 방문견학

3월의 마지막 어와나 클럽을 열었다. 단원들이 클럽의 모든 순서에 너무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 빨강, 파랑, 초록, 노랑반의 응원 함성소리는 정말 대단하다. 열심히 달렸지만 반칙을 한 단원의 고백과 함께 아쉬워하는 순수함을 엿볼 수 있었다. 19일은 어와나 클럽의 1/4분기 출석상을 주는 날이었다. 파랑색깔의 보석을 한번도 빠지지 않은 단원에게 달아 주었다. 약 50%의 단원들이 출석상을 받았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빨강반 - 김요섭, 강은서, 안우석, 조유라,김지윤, 정유선, 김유빈
파랑반 - 김지우, 정유진, 최정민, 최정수,민지원, 이은서
초록반 - 이예은, 정지인, 조건호, 이은채
노랑반 - 신영호, 박지성, 조민호, 김근백, 원의현, 최혜령

그동안 토요일 오후에 단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부모들과 교사들 그리고 전도사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또 반포에 위치한 남서울교회 어와나 클럽의 전도사와 담당 교사 20여 명이 주님의 교회 어와나 클럽을 방문 견학하였다. 남서울교회가 어와나 클럽을 오픈 준비 과정 속에 있다. 이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전했으며 질문을 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그 분들의 궁금한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3월 26일에는 불티 2반이 전야제를 행하며 4월 2일에는 불티 2반이 정식으로 오픈을 한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린다. 불티 1,2반은 교회의 미래이다.

통합유아부

김수연 전도사

안녕하세요 저는 싹트네를 섬기게 된 김수연 전도사입니다. 주님의교회에서 먼저 경험한 기쁨은 좋은 동역자들입니다. 교육목사님이신 홍민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부서 전도사님들과 같이 일하게 되어서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큰 계명을 삶으로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한마음으로 주님의교회 교육부서가 가진 비젼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섬기게 된 싹트네는 0-7세까지 유아들이 9시 30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서입니다. 푸근하고 다정한 싹트네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아래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니 눈이 부셔서 만지기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일주일 내내 아이들 얼굴이 아른거려서 주일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싹트네에 머무는 동안 조금 더 많은 사랑, 조금 더 많은 기도를 받게 해 주고 싶습니다. 마음껏 사랑받으며 들에 핀 백합화처럼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 즐거움을 맛보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라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마음 든든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뛰어난 분들이시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자랑은 아이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애정으로 가꾸고 키우고 사랑하시며 싹트네를 지켜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출발하게 되어서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저희 싹트네는 "가족" 입니다. 주님안에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부서로 부르시고 귀한 동역자들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충성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싹트네를 향한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